

월성 원자력환경관리센터 착공식 축사

존경하는 경주시민과 경북도민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월성 원자력환경관리센터의 착공을 온 국민과 더불어 축하드립니다. 경주시민 여러분, 기쁘시지요? 걱정도 좀 있지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우리 정부로서는 정말 큰 짐을 덜었습니다. 19년이 걸렸습니다. 9번이나 상처만 남기고 무산되었습니다. 그러나 2년 전 드디어 결론을 봤습니다.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정부와 그리고 주민도 모두 함께 승리하는 방폐장 부지 선정을 이뤄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로운 도약의 첫 삽을 뜨게 되었습니다. 정말 기쁘고 감격스럽습니다. 그동안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이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고 계신 경주시민과 경북도민 여러분께 거듭 인사를 올립니다.

경주시민 여러분,

정부는 여러분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 낼 것입니다. 지키지 않으면 다음에 이

런 일을 다시 할 수가 없게 되겠지요. 정부는 앞으로도 이와 같이 어려운 일, 또 더 어려운 일들을 풀어 나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의 약속을 지키고 신뢰를 확보해야 합니다. 약속은 꼭 지켜질 것입니다.

특별지원금은 지난해 이미 지급되었습니다. 2010년까지 한수원 본사가 이곳으로 이전할 것입니다. 조금 전 사장에게 그때 이전하는 한국수력원자력 직원들 학교는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지금도 괜찮습니다. 울산도 있고, 경주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본사가 오면 아예 한수원이 책임지고 학교 하나를 한국 최고의 학교로 만들어 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컨벤션센터, 에너지박물관 등 올 4월 정부 계획으로 확정된 55개 지원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양성자 가속기 건립에 대해서도 기대가 크실 것입니다. 양성자 가속기뿐만 아니라 그 배후단지 조성까지 지원계획에 포함시켜 놓았습니다.

천년 고도의 문화적 기반을 복원하고 발전시키는 노력도 착실히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월정교, 황룡사 복원, 신라문화 체험단지 등이 완료되면 훨씬 더 많은 국내외 관광객들이 이곳 경주를 찾게 될 것입니다.

아직 일부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것이 있어서 좀 걱정하신 분들이 계신 것으로 들었습니다만, 그것은 정부 나름대로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할 수는 없습니다. 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차근 차근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정부는 신용을 지켜야 이후에도 큰일을 할 수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경주는 보석 같은 도시입니다. 세계적인 역사문화도시로, 첨단 에너지·과학 도시로 더욱 힘차게 도약해 나갈 것입니다. 전통과 첨단이 어우러지는 도시 발전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정부는 있는 힘껏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경주는 그만한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참석자 여러분,

지구 온난화로 인한 우려가 높아지고, 유가가 급등하면서 세계적으로 원자력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30년간 원전을 짓지 않았던 미국을 비롯해서 러시아·중국 등 많은 나라들이 원전 확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유럽의회도 원전의 추가 건설을 지지하는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원자력 에너지의 기술 수준과 안전성이 그동안 높아졌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세계 6위의 원자력 발전 국가인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건설 기술과 운영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원전은 세계 400여 개의 원자력발전소 중에서 최상위권의 이용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도시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성에 있어서 세계적 수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원자력 발전을 시작하려는 나라에게 저는 항상 이 점을 강조해서 자랑합니다. '한국 원전은 세계 최고의 안전성을 가지고 있다, 도심지 안에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면 대개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제가 방문한 많은 나라의 지도자들이 우리 원전 기술에 큰 관심을 보이면서 협력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월성 원자력환경관리센터는 이러한 원자력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과 원전기술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기반입니다. 정부는 원자력발전소뿐만 아니라 방폐장 또한 세계 최고의 안전성을 갖춘 시설로 건설할 것입니다.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휴양·관광시설로, 첨단 과학을 배우는 교육·학습의 장으로 그렇게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이곳이 경주가 자랑하는 또 하나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갑시다.

참석자 여러분,

방폐장 부지 선정은 사회적 갈등과제 해결의 새로운 지평을 연 의미 있는 역사입니다.

정부부터 자세를 바꿨습니다. 그동안 실패의 원인들을 꼼꼼히 분석하고, 해외

사례들도 충실히 연구했습니다.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주민 여러분의 이해를 구했습니다. 국책사업을 대상으로는 처음 주민투표제를 실시해서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이뤄 냈습니다.

주민 여러분도 마음을 열어 주셨습니다. 방폐장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토대로 무엇이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무엇이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일인지 진지하게 논의하고 결단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반대하신 분들까지도 결과를 존중하고 승복하는 성숙한 자세를 보여 주셨습니다.

이제 개발독재 시절의 밀어붙이기식 행정으로는 국책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급할수록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마음과 뜻을 하나로 모아 내야 합니다. 그래야 더 큰 추진력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사패산 터널이나 장항산업단지, 항만노동공급체계 문제도 우리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합리적인 해결의 길을 찾아냈습니다.

저는 결코 풀지 못할 갈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소신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서로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설득하고, 타협해서 결론을 이끌어 내야 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아 표결로 가더라도 결과에 승복하고, 그 결과를 자기 자신의 결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사회가 바로 선진사회입니다.

앞으로 방폐장 선정과 같은 성공사례들이 더 많이 나오고, 대화와 타협이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문화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합시다. 그래서 경제·사회 모든 면에서 세계의 모범이 되는 선진한국의 미래를 열어갑시다.

저는 가끔 약한 정부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좀더 세게, 강력하게 하라는 조언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고, 강력한 정부는 아니었지만, 세고 강력한 정부들이 해결하지 못했던 미루어 두었던 많은 문제들을 참여정부에서 해결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오히려 강한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월성 원자력환경관리센터의 착공을 축하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경주에 더 큰 복이 쏟아지길 바랍니다.